

“이스라엘의 무기”

여호수아 11:1-9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전투에서 남부의 다섯 왕의 연합군에게 승리함으로써 가나안 남부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훈련 받은 40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시간을 낭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 그들은 더욱 강인한 기초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지니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훈련받을수록 더 깊은 영성과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방 족속들과 싸운 내용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북부는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남부 지역과 달리 지형이 평지여서 전쟁에서 말과 마차는 필수적인 곳이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수 11:1-3)

가나안 북쪽왕의 중심은 하솔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가나안 북쪽의 모든 왕과 족속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말이나 전차를 사용해서 지형이나 기술에서 불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반에 격파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지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인 말과 병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습 작전을 감행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수 11:7)

여호수아는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몇 차례 이 기습 작전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방법, 강점으로 싸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 그 강점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큰 갑옷과 투구를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집어들고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강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강점이 있고,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소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라 하시니라” (수 11:6)

전쟁에서 승리하고 취한 전리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과 병거입니다. 평지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두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얻게 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살라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분만 의지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와 그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삼상 17:47)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좋은 무기와 전략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또 기도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으리라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셔도 문제를 해결할만한 다른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전략중에 가장 낮은 전략이 힘으로 몰아부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을 속이는 것이며, 가장 고수의 전략이 바로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병을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12:7)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은, 불리한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점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약점은 오히려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안전장치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 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수 11:7-8)

여호수아는 자신들보다 월등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기습 공격을 통해 승리하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 안주해 있거나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열심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지 않고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야간에 수많은 군사들이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적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침묵을 유지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잘 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안락한 현재의 상태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훈련도 하고 세상적 즐거움과 쾌락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열정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걱정적으로 지휘하는 지휘자나 연주자를 보게 되면 보는 청중들의 몸도 함께 덩달아 움직이듯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주의 일에 힘쓸 때, 우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 그 방안의 온도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하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이겨내야 위해 노력합니다. 마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추우면 옷을 꺼입고 더우면 옷을 벗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면 안됩니다.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기는 하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침범해 들어올 때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우리의 최고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 포기하도록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덩달아 주변 사람들도 몸이 들썩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보며 도전 받은 적이 있었거나,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3.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다짐하거나 결단이 되는 말씀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